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예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오늘 점심과 오후찬양예배는 '가정의 주일'로 인해 없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은 김경미 권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다음 주일 2부 대표기도는 김윤식 장로님입니다.
4. 오늘 주일낮예배 시간에 김예준 어린이의 '어린이 세례식'을 가집니다. 축하합니다.
5. 나가실 때, 준비된 간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떡은 오진석 집사님이, 부활절 구운 달걀은 남선교회에서, 함께 마실 음료수는 여선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6. 4월 월삭새벽기도회는 4월 6일(토)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가집니다.
7. <하늘문의 만나> 4월호가 출간되어 본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묵상용-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3월 31일	4월 7일	4월 14일	4월 21일
예배기도(2부)	유중열 장로	김윤식 장로	윤형근 장로	박성근 장로
예배기도(오후)	인도자			
식사담당	가정의 주일	김경미 권사 가정	황희용 권사 가정	차인숙 권사 가정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 환우들을 위해서(곽성미 집사, 등)
3.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십티(힘안), 예수교회(대구), 두리원(장애인 복지시설)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김이 ■ 부목사: 구은세 ■ 협동목사: 김전희 ■ 전도사: 박일선, 김진규
 ■ 시무장로: 유중열, 박성근 ■ 협동장로: 김윤식, 윤형근 ■ 은퇴장로: 신태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교독문 133번(부활절) 다같이
*경배찬송	80장(통 101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165장(통 155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유정영장로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인도자
자녀를 위한 기도	고전 15:1-11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허영진 목사
마무리기도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허영진 목사

성례전

어린이세례	김예준 어린이 허영진 목사
축하의 시간	다같이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161장(통 159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 말씀하기를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8,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찬양예배는 ‘가정의 주일’로 인해 없습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사복음서 강해 허영진 목사
마 16:13-20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인만>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부활의 아침에

사람이 갖는 공포 가운데 죽음은 단연 앞섭니다. 그래서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죽으면 끝이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느낍니다. 심지어 죽음의 권세 앞에는 항우장사라 할지라도 별별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현실이며, 포편적 사실입니다. 성장을 끝마치면 머물렀던 자리에서 떠나는 낙엽처럼 우리 인생도 성장을 마치면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여느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받아들여야지, 모든 것이 끝이라는 마지막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죄성(罪性)이 지배하는 육신을 입고서는 갈등과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경험하는 영화(glorification)라는 영광스러운 단계가 있음을 성경과 신학의 구원론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경험하는 자는 성도에 한한 소망이며, 경험임에 틀림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자가 바라보고 장차 경험할 아름다운 죽음이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기대에 찬 죽음이요, 그 후에는 상급이 기다리고 주를 만날 소망에 찬 경험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이런 믿음에 찬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자는 온전한 모습으로 인생을 통과하며 예수 생명을 씨 뿌리듯 뿌리는 삶을 삽니다. 아울러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향해 당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힘으로 삽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 갈 인생입니다. 다만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게 두려운 것이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말이 생각나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Written by 허영진